에덴은 사실 무법칙천지였다

(이사야 47:1~15)

10.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11.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12.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13.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에덴은 사실 무법칙천지였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에덴은 사실 무법칙천지였다'
무법천지는 법 없이 폭력이 난무하고 질서가 무시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한편 타락 전의 에덴은 무법칙천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복음을 생활화하는 것은 잃어버린 에덴의 삶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 회복한 에덴의 삶은 무법칙천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무법천지와 무법칙천지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앞서 보았던 대로 타락한 삶의 특징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법칙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칙이 많을수록 기쁜 삶은 불가능합니다.
철학자 칸트가 "지성은 법칙을 자연에서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법칙을 규정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에서 법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특정현상에 법칙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구름이 끼고 비가 와서 태양이 가려질 수는 있어도 태양의 움직임은 변치 않습니다. 또 지구에는 자전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은 자연법칙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칸트에 의하면 이것은 어떤 법칙에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인간이 반복되는 현상에 법칙이라

는 말을 붙였을 뿐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법칙으로 규정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려하기 때문입니다. 법칙은 어떤 일이 일정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방식이 있다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인으로써 성공과 형통과 번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삶을 장악해야만 합니다. 삶에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면 장악이 쉬워집니다. 법칙은 일정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내가 장악해서 조정하고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 삶은 쉬워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에 법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집니다. 지구도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며 모든 삼라만상은 자연법칙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이러한 일들은 어떤 법칙에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한 바퀴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구를 한 바퀴 돌리고 계십니다. 내일도 그렇게 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서를 좋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어떤 법칙을 정해두고 따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단순히 법칙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의식 속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활동을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태양을 떠오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연한 법칙에 따라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의식에서 배제되고 내가 삶의 주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도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태양이 떠야 합니다. 그런데 태양은 법칙에 따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삶을 계획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배제가 극단적으로 일어났던 때가 17~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고 합리성이 최고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때에 신학에서도 자연신론(自然神論) 혹은 이신론(理神論)으로 불리는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는 인정하지만 이 세상은 완벽한 기계적 법칙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창조주가 만든 법칙을 잘 이해함으로 삶을 번영과 형통으로 이끌 수 있다는 발상입니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온 천지가 법칙의 세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근본적으로는 뉴턴의 기계관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나 기적들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전설이나 거짓말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론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백합화 한 송이를 보실 때에 다년생 구근 식물로써 뿌리

가 월동한 후에 여름이 되자 꽃이 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백합화를 친히 입히고 계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뉴턴이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법칙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물체가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중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신 성향으로 물방울 하나까지도 제어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너무도 정교하고 규칙적이기에 뉴턴은 이것을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존재했던 에덴은 무법칙천지였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오직 판단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의 법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끔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면 인간의 마음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억제되고,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시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타락전의 인간은 법칙에 의존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모셔 들여서 그 판단을 받아들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 삶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삶을 장악하려다보니 환경을 파악해야만 했고 의존할 법칙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과 같이 바벨론의 멸망이 계속해서 예언됩니다.
다만 어제 보았던 본문과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어제는 바벨론을 강대한 나라로 이끌어주었다고 믿었던 벨과 느보 같은 우상들이 처단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옛날에는 나라의 부강함은 그 나라에서 믿는 신의 능력에 달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선민들조차도 하나님은 힘이 없다고 여기고 바벨론의 신들은 힘이 세다고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들을 타파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다고 할 정도로 바벨론의 발달된 학문과 연관된 언급이 나타납니다. 9~13절을 보면 주술, 주문, 지혜와 지식, 많은 계략, 천문학, 점성술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또 이러한 학문과 지혜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이유를 밝힐 수 없으리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당시의 주변국들에 비해 학문적 활동이 무척 활발했습니다. 산수나 천문학이 발달했고 점성술이나 마법 등이 월등했다고 합니다. 지금에야 점성술이나 마술이 비과학적 미신으로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고등학문이고 철학으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는 동물학 식물학 의학이 발달했고, 계량학과 수학과 과학이 뛰어나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여겨지는 바벨론의 공중정원 등이 건축되기도 하였습니다. 공중정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400제곱미터 규모의 토대에 탑을 30층 높이로 쌓았는데

맨 마지막 층은 60제곱미터 밖에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층마다 나무를 심고 물을 끌어 올려서 탑을 숲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본문의 예언을 살펴보면 바벨론이 초강대국이 되고 발전을 누리고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누리며 사는 이유를 바로 학문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에서 첫 번째 원인은 우상숭배였으며 두 번째가 학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문이 곧 법칙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행동입니다.
10절을 보면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창조주를 배제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랑하던 지혜와 지식은 곧 삶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것에서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들의 지혜와 지식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도록 유혹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11절을 보면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삶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법칙들을 만들어내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 경제적 법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법칙이 있음에도 손해가 자꾸만 발생합니다. 그 많은 법칙으로도 이해할 수도 없으며 물리칠 능력도 없어서 파멸이 홀연히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도 새롭게 여겨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시즌1은 일부러 참고하지 않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기존의 말씀을 보충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내용의 설교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을 보면 이러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에덴은 무법칙천지였습니다. 법칙 대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하셔서 삶의 주인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삶의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해를 뜨게 하신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이들 하나하나에게 모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도 해를 뜨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마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해를 뜨게 하신 것처럼 여긴다하여도 잘못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법칙으로 여긴다면 지금 나를 향한 의도와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은 배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는 이가 없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악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비단 자연법칙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삶의 모든 분야에

서 법칙을 발견해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세분화되어서 '행복한 부부관계의 원칙,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십계명, 엘리트 자녀양육의 법칙, 대화의 법칙, 5분 안에 설득시키는 대화의 방법'등을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돈을 버는 곳에서는 더합니다. '부동산투자의 법칙, 증권투자의 법칙'등 법칙이 없으면 못 살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건강에 대해서도 '100세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등과 같이 수명마저 규정짓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새벽형 인간'등과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요새 중국산 제품을 빼고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우리는 법칙을 빼놓고 삶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 삶을 직접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배제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은 이러한 법칙의 왕국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기질은 '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겠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죄적 기질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우상숭배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삶에 대해 주체가 되었는데도 나의 힘만으로는 성공과 형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방해가 많고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삶의 주체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기에 힘이 있는 대상을 의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지배당한 마음으로 대하는 일들에 질서와 열매와 광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마음에 담을 때마다 혼돈 속에 처박아버리는 결과만이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자녀를 담가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녀는 더욱 망가져갑니다. 그런데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삼켜진 주체성을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그 결과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 우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만들어진 우상에게 모든 능력이 있다고 최면을 겁니다. 이 우상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스스로의 주체성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내 말을 그대로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삶에 법칙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는 법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한 순간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피조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대상에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손대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배제시키며 법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고작 아침 식단에서도 법칙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배제되고 법칙이 들어서는 순간 아침 식단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내팽개쳐집니다. 법칙을 붙잡고 법칙을 만들고 법칙에 의존하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에서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칙을 잔뜩 끼고 살아가다가 막막해지면 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며 인격적이신 창조주로써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체성을 확고히 해줄 우상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벨이나 느보와 같은 우상과 하나님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이 참 질깁니다.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이 생기면 지독하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생겨난 소원과 주체성을 죽이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자들의 뜻을 들어주시지 않으실 것이기에 삶은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법칙을 만들고 따르려는 마음을 벗어나 무법칙천지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이 아니면 억제되지 않습니다. 심리학 박사 100명을 모아놓아도 소용이 없고,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길게 연장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삶의 주체가 된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합니다. 판단하고 소원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하다 안 되면 걱정하고 짜증내고 불만이 생깁니다. 모두 주체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장악하려는 욕망 때문에 무슨 법칙이라는 책만 나오면 사서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악이라고 합니다.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 곧 법칙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실 뿐입니다. 아무리 확고한 법칙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도와 어긋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태양이 멈춘 적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법칙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주선에는 수십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모든 부품들이 어떤 확고한 과학적 법칙에 따라서 우주선을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법칙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부품들 하나하나까지도 그렇게 되도록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수술합니다. 꿰매면 상처가 아무는 것을 법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상처를 붙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지구 전체에서 수없이 많은 수술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들은 의학이라는 법칙에 의존해서 수술을 집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술 한 건 한 건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살을 붙이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배제하고 법칙으로 당연시하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법칙을 만들고 따르려는 마음을 죽여야 합니다. 법칙은 내 주체성을 보존하고 삶을 장악하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려는 마음을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으

로써 법칙 대신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나의 주체성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써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삶에는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무법칙천지였던 에덴의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오직 그곳에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담 안에서 아담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격적 원칙이셨습니다. 에덴은 그 이름대로 기쁨의 삶을 의미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법칙천지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전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법칙을 붙잡는 나의 주체성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법칙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무법칙천지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